**1. 약인공지능(ANI-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)**
특정분야에서 정해진 업무만 처리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.
알파고나 IBM의 왓슨처럼 미리 정의된 규칙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사물을 분석하고 답을 할 수 있다. 자아와 지성은 없지만, 특정 영역에서 인간보다 우월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.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, 현재 인공지능이란 표현 대신 '인지컴퓨팅(cognitive computing)'이라고 부르기도 한다.

**2. 강인공지능(AGI :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)**
사람과 똑같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. 즉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똑같은 수준의 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이다. 인간만이 지닌 자아를 가진다거나 자유의지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강인공지능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,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.

**3. 초인공지능(ASI : Artificail Super Intelligence)**
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을 말한다.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레즈 커즈와일 박사는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진화해 2029년에는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고 2045년에는 특이점(Singularity)이 온다고 주장했다. **특이점은 인공지능이 전체 인류 지능의 총합을 넘어서는 시점으로, 인류의 지능을 초월해 스스로 진화해 가는 기점(기술적 특이점)을 뜻한다.**